

# 「제21회 한(韓)·일(日) 철강협의회」 부산에서 열려

- 양국 간 철강 탄소중립, 무역현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제21회 한(韓)·일(日) 민관 철강협의회」를 4.19.(금) 오전 9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한(韓)·일(日) 민관 철강협의회」는 '01년 출범한 한국과 일본 철강산업 간 정례 소통채널로써, '19년부터 중단된 후 4년 7개월 만인 작년 5월 도쿄에서 재개한 바 있다. 금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일본 경제산업성 금속산업과,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양국 주요 철강기업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반 및 철강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규제, 무역현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업계는 철강수요 부진과 공급과잉 지속, 각국의 무역장벽 심화, 지정학적 변동성 등으로 무역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철스크랩·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 연원료 확보, 탄소감축 기술개발, 저탄소 철강 국제표준·정의 수립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제2회 한(韓)·일(日) 그린철강 공동세미나」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철강산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수록 한(韓)·일(日)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철강업계가 탈탄소화, 무역장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상당부분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 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4.19.(금) 09:00-13:00 /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번룸)
- (참석자) 양국 정부(과장급) 및 협회, 주요 철강기업 등 56명
  - (한국) 산업부(철강세라믹과), 철강협회(부회장), 주요 철강기업 등\* 37명
    -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국씨엠, 세아홀딩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 KG스틸
  - (일본) 경산성(금속산업과), 철강연맹(상무급), 주요 철강기업 등\* 19명
    - \* JFE, NSC, 고베제강, NSSC, 日특수강협회, 日스테인리스협회
- (주요의제) 경제·산업동향 정보 공유, 양국 관심 이슈 등

□ 주요 일정 및 의제

일시		내용	비고
4.18(목)	16:30~18:00 (90')	한-일 정부 간 사전회의	* 정부 Only, 롯데호텔
4.19(금)	08:30~09:00 (30')	등록	* 3층 크리스탈볼룸
	09:00~09:20 (20')	개회사 / 대표단 소개 / 의제 채택	* 양국 수석대표
	09:20~09:50 (30')	<의제-1> 한-일 경제동향 (韓) 산업부 / (日) 경산성 금속과	
	09:50~10:30 (40')	<의제-2> 양국 철강산업 동향 (韓) 철강협회 / (日) 철강연맹	
	10:30~10:45 (15')	휴식 (Coffee Break)	
	10:45~11:50 (65')	<의제-3> 기타 관심의제 ① EU CBAM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② 일본 철스크랩 수급 전망 ③ 동북아 철강시장 현황 ④ 非KS H형강 수입 증가	* 양국 참석자
	11:50~12:00 (10')	회의결과 정리 / 폐회	* 양국 수석대표
	12:00~13:00 (60')	오찬(Bufferet)	* 3층 펠룸